



누가복음 본문비평과 번역

송영목(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들어가면서

최근에도 누가복음의 사본 및 사본의 신학적 경향에 관한 연구는 지속되고 있다.¹ 이 글의 목적은 누가복음의 본문비평을 통한 사본의 경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GNT 5판의 본문비평 등급을 참고하여, 눅 1-10장으로 범위를 제한한다. 사본들의 통일성과 확실성이 큰 본문비평 등급 {A}와

1. 누가복음의 콥트기독교의 사히딕 역본에 대한 연구는 B. C. Jones, "A New Sahidic Fragment of the Gospel of Luke from the Michigan Collection," *Novum Testamentum* 56 (2014), 198-204를 보라. 그리고 3-4세기 이집트에서 제작된 대문자 사본 0171은 서방 계열로 분류되는데, 베드로의 실수와 수치를 삭제한다(눅 22:51, 62). 이런 신학적 경향은 4세기 초, 서방교회의 친베드로적 성향 및 이집트 내의 반베드로적 성향에 대한 변증의 결과로 보인다. C. G. Pardee, "Peter's Tarnished Image: Scribal Polishing in the Gospel of Luke (Ms 0171)," *Annali di Storia dell'Esegesi* 33/1 (2016), 153-55, 159, 166.

{B}는 제외하고, {C}에 해당하는 17구절로 연구 범위를 한정한다.² 편의상 본문비평을 위해서 크게 두 구분 즉 비평사본(알렉산드리아계열의 대문자 양피지사본)과 다수사본(비잔틴계열의 소문자사본)으로 분류하여 비교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한글 번역본 2개와 외국어 성경 번역들을 비교하고, 필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번역을 제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본의 통계를 통하여, 사본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도 설명할 것이다.

1. 본문비평과 번역 제안

1.1. 누가복음 3:33

² ⌘ L 157 Die Bybel	τοῦ Ἀμιναδάβ τοῦ Ἀδμὶν τοῦ Ἀρνι ³
⌘ B	τοῦ Ἀδάμ τοῦ Ἀδμὶν τοῦ Ἀρνι
A D 33 일부 다수사본	τοῦ Ἀμιναδάβ τοῦ
개역개정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바른성경	아미나답, 아드민, 아니
번역 제안	아미나답, 아드민, 아니

GNT 4판의 편집자들은 무난한 알렉산드리아 사본계열의 표기를 헬라어 성경 본문에 채택했다고 설명하면서, τοῦ Ἀμιναδάβ τοῦ Ἀδμὶν τοῦ Ἀρνι(아

2. 참고로 눅 11-24장에서 본문비평 등급이 {C}인 경우는 26회이며, 누가복음에서 등급 {D}는 없다 (눅 11:10, 11, 12, 13a, 14, 24, 33; 12:22; 13:7, 27ab, 35b; 14:17; 17:23, 24; 18:11, 24; 19:38; 20:9, 27, 45; 21:11, 19; 23:11; 24:32, 49).

3. 이 글에서 첫 번째 헬라어 표기는 헬라어 성경의 본문에 있는 표현이다.

미나답, 아드민, 아니)를 지지했다.⁴ 하지만 알렉산드리아 계열 양피지 사본들은 τοῦ Ἀδάμ τοῦ Ἀδμίν τοῦ Ἀρνι(아담, 아드민, 아니)라 표기한다. 그리고 3세기경에 제작된 p⁴는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계열인 \aleph 와 B와 다르다.⁵ 흥미롭게도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파피루스와 양피지 사본 가운데 어느 것도 ‘람’(Ἀράμ)을 포함하지 않는다.

문맥 상 눅 3:38에 ‘아담’이 언급되기에, 33절에서 그를 미리 언급하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 ‘아담’은 ‘아미나답’을 잘못 필사한 ‘아미나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아드민’은 ‘아담’의 필사 상 변형으로 보인다.⁶ 그런데 『바른성경』처럼 33절에 ‘아드민’을 추가하는 것은 합당한가? 마 1:3-4와 룿 4:18-19 그리고 대상 2:9에 따르면, 족보 순서는 할아버지 헤스론, 아들 람(Ἀράμ), 손자 아미나답이다. 그렇다면 누가는 ‘람’ 대신에 ‘아니’라고 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람’과 ‘아니’ 혹은 ‘아드민’은 동일 인물인가?⁷ 한 언하면, ‘람’이 ‘아니’로 잘못 전수되었는가?⁸ 이에 대해 비교할 만한 정보의 부족으로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사람 77명이 거론된 누가의 족보는 덜 인위적인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병렬 구조를 보이는데, 이를 마태의 족보의 패턴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⁹

4. B. M. Metzger, 『신약 그리스와 본문 주석』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장동수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05), 109.

5. H. Heater Jr., “A Textual Note on Luke 3:33,” JSNT 28 (1986), 26.

6. Heater Jr., “A Textual Note on Luke 3:33,” 27. 참고로 ‘아드민’을 ‘아미나답’의 축약형 혹은 전수 상 오류라고 본 경우는 J. Nolland, Luke 1-9:20 (WBC; Dallas: Word, 1989), 172를 참고하라.

7. 그렇다고 보는 견해는 신현우, 『누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16), 79를 보라.

8. Nolland, Luke 1-9:20, 172.

9. Heater Jr., “A Textual Note on Luke 3:33,” 29.

누가복음 3 장 족보	마태복음 1 장 족보
하나님부터 데라(21명; 3x7)	없음
아브라함부터 다윗(14명; 2x7)	아브라함부터 다윗(14명)
나단에서 스알디엘(21명; 3x7)	다윗에서 여고냐(14명)
스룹바벨에서 그리스도(21명; 3x7)	여고냐에서 그리스도(14명)

위의 도표와 같이 마 1장의 족보와 비교한다고 해서, 눅 3:33의 본문비평 문제는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눅 3장의 77명의 족보는 7명씩 11그룹으로 구성되기에, 눅 3:33에서 세 명(아미나답, 아드민, 아니)이 모두 포함되는 게 자연스럽다.¹⁰ 내증이 불확실하기에, 외증(外證)만 두고 본다면 p^{4 2} & L 157이 지지하는 첫째 표현이 원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1.2. 누가복음 6:1

p ^{4 2} & B	σαββάτω
A C D 다수사본	σαββάτω δευτεροπρώτῳ
개역개정	안식일에
바른성경	어느 안식일에
번역 제안	안식일에

의미가 잘 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누가복음은 물론 그리스어 문헌에 등장하지 않는 희귀 단어인 δευτεροπρώτῳ(둘째-첫째)는 필사 상 오류로 중복 필사(dittography)된 것으로 추정된다.¹¹ 띄어쓰기가 없던 시대에 헬라어 대문

10. D, L. Bock, *Luke 1:1-9:50* (BECNT; Grand Rapids: Baker, 1994), 362.

11. J. R. Edwards,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Grand Rapids: Eerdmans, 2015), 177; A. J.

자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필사자의 시각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눅 6:1의 다수사본의 경우, 앞 단어의 끝 $\tau\omega$ 와 뒤따르는 단어의 끝소리 $\tau\omega$ 는 동일하다.¹² 참고로 병행 본문인 막 2:23은 시점을 복수형을 사용하여 ‘안식일에’(ἐν τοῖς σάββασι)라고 표기하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계절은 밀을 잘라 먹을 수 있던 4-5월경이다.

다수사본을 옹호하는 판 브뤼켄(J. van Bruggen)은 ‘둘째-첫째 안식일에’(σαββάτῳ δευτεροπρώτῳ)를 두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소수의 비평 사본에 이 표현이 빠진 것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표현을 대다수의 사본이 포함한다는 사실은 오해 때문에 이 표현이 발생했거나 무의미한 표현으로 버려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뿐더러, 의미를 매끄럽게 다듬기 위해 후대에 첨가된 것도 아니라고 본다. 이 표현의 진정성을 전제로 하는 좀 더 가능성 있는 설명은 두 단어를 따로 분리시켜 ‘첫째 니산 월의 둘째 안식일’로 이해한 매츠거(B. M. Metzger)의 설명이다. 하지만 비교할만한 자료가 부족하기에 매츠거의 주장에 대해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렵다.”¹³ 판 브뤼켄의 위의 설명은 이상한 표현이 왜 원본에 있었는가를 논증하는데 있어 부족하다. 그의 주장과 달리 대다수 학자들이 지지하듯이, ‘둘째-첫째’(δευτεροπρώτῳ)는 4세기 이전의 대문자 사본들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 누가의 표현도 아니며, 문법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표현이므로 필사상의 오류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

Thompson, *Luke* (EGGNT; Nashville: B&H Academic, 2016), 97; Metzger, 『신약 그리스와 본문 주석』, 112.

12. T. C. Skeat, “The Second-First Sabbath (Luke 6:1): The Final Solution,” *Novum Testamentum* 32 (1988), 104-105.

13. J. van Bruggen, *Lucas: Het Evangelie als Voorgeschiedenis* (Kampen: Kok, 1996), 148.

1.3. 누가복음 7:19

B	κύριον
⌘ A 다수사본	Ἰησοῦν
개역개정	주께
바른성경	주께
번역 제안	예수님께

GNT 4판의 편집자들은 κύριον(주님)이 Ἰησοῦν(예수님)보다 누가복음의 문체에 어울린다고 본다.¹⁴ 그러나 사본 상 ‘예수님께’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¹⁵

1.4. 누가복음 8:26

p ⁷⁵ B D Die 157 Die Bybel	Γερασηνῶν
⌘ L 오리겐 유세비우스 제롬	Γεργεσηνῶν
개역개정	거라사인의
바른성경	거라사
번역 제안	거라사인들의

사본 상의 지지가 한정적인 Γαδαρηνῶν(가다라, Gadarenes)은 마 8:28에 동화된 것으로 보이며, Γεργεσηνῶν(게르게사, Gergesenes)은 오리겐이 수정한 표현으로 추정된다.¹⁶

14. Metzger, 『신약 그리스와 본문 주석』, 115.

15. Contra J. van der Watt et als (ed), *Interliniêre Bybel: Grieks-Afrikaans* (Vereeniging: CUM, 2012), 350.

16. Edwards,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247; Metzger, 『신약 그리스와 본문 주석』, 116.

총 72페이지에 걸쳐 누가복음(P.Bodmer 14)과 요한복음(P.Bodmer 15)을 포함하는 p⁷⁵는 빠르면 2세기 늦으면 3세기 초에 남부 이집트에서 크리스천 전문 필사가에 의해 제작되어 공적 예배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⁷ 그런데 이 필사자는 본문의 조화를 시도하기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어 p⁷⁵는 B는 물론 알렉산드리아 사본계열의 가장 이른 시기의 선구자와 같다.¹⁸ 사본 상 가장 큰 지지를 받는 p75 B D가 지지하는 남성 복수 속격 형용사 Γερασηνῶν은 ‘거라사인들의’(Gerasenes)라고 직역된다.¹⁹

갈란드(D. E. Garland)는 이문들의 지리적 정보를 제공하며,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거라사는 오늘날 예라쉬(Jerash)인데, 갈릴리 호수에서 남동쪽으로 33마일 떨어진 곳이다. 그리고 가다라는 갈릴리 호수에서 남동쪽으로 6마일 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으로, 데가볼리 중에서 내륙의 큰 도시였기에 이 표현으로써 주변의 넓은 지역을 망라할 수 있었다.²⁰ 마지막으로 게르게사는 오늘날 엘 쿠르시(El Koursi)인데, 갈릴리 호수의 동쪽 해안가의 절벽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 여러 이문이 발생한 이유는 갈릴리 호수에서 더 가까운 지역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²¹

1.5. 누가복음 8:37

17. C. G. Pardee, “Scribal Harmonization in Greek Manuscripts of the Synoptic Gospels from the Second to the Fifth Century” (Ph.D. Thesis, Loyola University, 2016), 158-59.

18. Pardee, “Scribal Harmonization in Greek Manuscripts of the Synoptic Gospels from the Second to the Fifth Century,” 160-61.

19. Nolland, *Luke 1-9:20*, 406.

20. 참고. Thompson, *Luke*, 139; Nolland, *Luke 1-9:20*, 407.

21. D. E. Garland, *Luke*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11), 357.

p ⁷⁵ B C D	Γερασσηνῶν
² 1* ¹⁸	Γεργεσηνῶν
¹ 18 A 다수사본	Γαδαρηνῶν
개역개정	거라사인의
바른성경	거라사
번역 제안	거라사인들의

눅 8:26의 본문 비평과 번역을 참고하기 바란다. 여기서는 흥미롭게도, *¹⁸ 2가 1¹⁸과 차이가 난다. 이런 차이는 오리겐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이다.

1.6. 누가복음 8:43

² 18 A 다수사본	ἥτις ἰατροῖς προσαναλώσασα ὅλον τὸν βίον (의사들에게 모든 가산을 다 허비하였으되)
18* Die Bybel	ἥτις ἰατροῖς προσαναλώσασα ὅλον τὸν βίον ἑαυτῆς (의사들에게 자신의 모든 가산을 다 허비하였으되) ²²
p ⁷⁵ B D NIV	ἥτις
개역개정	ἥτις만 반영함
바른성경	의사들에게 전 재산을 써 버렸으나
번역 제안	개역개정처럼 ἥτις만 반영함

사본 상의 지지를 꽤 받는 ἰατροῖς προσαναλώσασα ὅλον τὸν βίον(의사

22. 이 표현은 Van der Watt et als (ed), *Interliniære Bybel: Grieks-Afrikaans*, 364의 지지도 받는다.

들에게 모든 재산을 허비했다)은 막 5:26의 요약으로 추정된다.²³ 그런데 다른 병행본문인 마 9:20은 이 여인의 재정 상황과 의사들의 무능을 언급하지 않는다. **κ**와 다수사본이 지지하는 긴 표현이 원본이었지만, 후대에 의사였던 누가를 고려하여 이것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도 있다(참고. 골 4:14).²⁴

공관복음 유래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 중 마가복음 우선가설(Markan priority hypothesis)을 따른다면, 누가는 8:43에서 막 5:26의 긴 표현을 요약하여 마 9:20과 조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마가복음 우선설은 짧고 어려운 표현이 원본에 일치한다는 가정을 존중하기에, 이 경우는 어려움에 봉착한다.

1.7. 누가복음 9:2

κ A	<i>ἰᾶσθαι τοὺς ἀσθενεῖς</i>
C 다수사본	<i>ἰᾶσθαι τοὺς ἀσθενοῦντας</i>
B	<i>ἰᾶσθαι</i>
개역개정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바른성경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번역 제안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κ와 A는 원본인 부정사 *ἰᾶσθαι*(고치기 위해)에다 형용사의 독립적 용법으로 언급된 남성 복수 대격 직접목적어 *τοὺς ἀσθενεῖς*(병자들을)를 추가했는가? 누가의 문체를 고려하여 내증을 살핀다면, *ἰᾶσθαι*는 직적 목적어를 취한다(참고. 눅 5:17).²⁵ **κ**와 A의 표기가 내증의 지지를 받는다. 다수사본

23. Thompson, Luke, 143; Metzger, 『신약 그리스와 본문 주석』, 117.

24. 참고. Edwards,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255; Garland, *Luke*, 367.

25. Metzger, 『신약 그리스와 본문 주석』, 118.

이 지지하는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대격의 분사의 독립적 용법 τοὺς ἀσθενοῦντας는 형용사형 ἀσθενεῖς(병자들을; 참고, 눅 10:9)보다 더 어려운 표현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분사형은 눅 4:40에도 사용된바 있다. 그러나 사본의 연대를 고려할 때 **℣**와 A의 표현을 원본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

1.8. 누가복음 9:3

A 다수사본	ἀνὰ δύο
℣ B	δύο
개역개정	두 벌
바른성경	두 벌 씌은
번역 제안	두 벌

사본 상 간단한 표현인 ‘두 벌’(δύο)이 지지를 더 받는다. 그리고 병행 본문인 마 10:10과 막 6:9도 부사 ἀνὰ(각각, each)를 생략한다. 물론 누가복음에 ἀνὰ는 2회 등장하지만(눅 9:14; 10:1), 다수사본은 이 단어를 첨가하여 의미를 더 명확히 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1.9. 누가복음 9:47

℣ B Die Bybel	ἀνὰ δύοεἰδῶς
A 다수사본	ἰδὼν
개역개정	아시고
바른성경	아시고
번역 제안	아시고

사본 상, 아오리스트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 ‘보시고’(ἰδὼν)보다 현재 완료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 ‘아시고’(εἰδώς)가 지지를 많이 받는다. 그러나 이 두 이문은 의미 상 별 차이가 없다. 참고로 누가복음에서 ‘아시고’는 눅 9:47의 근접 본문들인 눅 9:33과 11:17에 등장하지만, ‘보시고’는 21회나 사용된다.

1.10. 누가복음 9:59

p ^{45, 75} ⌘ 다수사본	κύριε
B	생략
개역개정	생략
바른성경	주님
번역 제안	주님

사본 상 ‘주님’을 포함하는 것이 지지를 더 받는다. 뒤 따르는 61절에 ‘주님’이 있다(참고. 마 8:21). p⁷⁵와 더불어 4세기 이전 알렉산드리아 계열 사본을 대표하는 p⁴⁵는 p⁷⁵와 표기 상 일치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²⁶ 따라서 양피지 대문자 사본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3세기경 이집트에서 누가복음의 사본들은 통일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다.

1.11. 누가복음 9:62a

26. Contra Pardee, “Scribal Harmonization in Greek Manuscripts of the Synoptic Gospels from the Second to the Fifth Century,” 161.

⌘	εἶπεν δὲ πρὸς αὐτὸν ὁ Ἰησοῦς
다수사본	εἶπεν δὲ ὁ Ἰησοῦς πρὸς αὐτὸν
p ^{45, 75} B	εἶπεν δὲ ὁ Ἰησοῦς
개역개정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른성경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번역 제안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본 상, 가장 짧은 표현 εἶπεν δὲ ὁ Ἰησοῦς(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이 지지를 많이 받는다. 의미를 더 분명하게 만들기 위해 표현을 추가하는 경향이 있는 다수사본은 πρὸς αὐτὸν(그에게)을 덧붙인다. 한글 성경들이 번역하지 않았지만, 눅 9:61과 9:62a는 반의접속사(δὲ)로 연결된다.²⁷ 참고로 KJV는 ‘And’(그리고)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61절은 먼저 가족을 작별한 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어떤 사람의 진술인데, 이에 반해 예수님은 9:62a에서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신다.

1.12. 누가복음 9:62b

p ⁷⁵ B Die Bybel	ἐπιβαλὼν τὴν χεῖρα ἐπ’ ἄροτρον καὶ βλέπων εἰς τὰ ὀπίσω
⌘ 다수사본	ἐπιβαλὼν τὴν χεῖρα αὐτοῦ ἐπ’ ἄροτρον καὶ βλέπων εἰς τὰ ὀπίσω ²⁸
개역개정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바른성경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번역 제안	손에 쟁기를 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27. Van der Watt et als (ed), *Interliniêre Bybel: Grieks-Afrikaans*, 377.

28. 이 표현은 Van der Watt et als (ed), *Interliniêre Bybel: Grieks-Afrikaans*, 377의 지지도 받는다.

1.13. 누가복음 10:1

p ⁷⁵ B D Die Bybel NIV ESV NET NJB	δύο ²⁹
⌘ A 다수사본 NKJV NRSV NASB HCSB	생략
개역개정	생략
바른성경	(이)
번역 제안	(이)

사본 상 두 이문을 대등한 지지를 받는데, 72가 약간 우세하다.³⁰ 따라서 하나를 선택하기 어렵기에 괄호 안에 번역을 추가하는 것이 무난하게 보인다.³¹ 눅 10:1에서 ‘70’을 지지하는 학자들로 E. E. Ellis, E. Schweizer, F. W. Danker, J. Nolland, F. B. Craddock, L. T. Johnson, N. Geldenhuys, S. H. Ringe 등이다. 반면에, ‘72’를 지지하는 학자들로 J. A. Fitzmyer, M. D. Goulder, C. A. Evans, C. M. Pate, J. B. Green, J. T. Carroll, F. Bovon, J. Nolland 등이다.³²

70명인지 72명인지는 구약과 외경의 관련 본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1) 모세를 돕기 위해 지명된 ‘70’ 장로가 있었다(민 11:16-17, 24-25).³³ (2) 세상의 여러 나라들이 ‘70’이었다(창 10). 그러나 LXX에는 ‘72’

29. 이 표현은 Van der Watt et als (ed), *Interliniêre Bybel: Grieks-Afrikaans*, 377의 지지도 받는다.

30. Edwards,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303.

31. 참고. M. M. Culy, M. C. Parsons and J. J. Stigall, *Luke: A Handbook on the Greek Text*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0), 342.

32. 최선미, “72인 파송: 누가복음서 10:1-12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0 (2018), 70-71; Z. J. Cole, “P45 and the Problem of the ‘Seventy(-Two)’: A Case for the Longer Reading in Luke 10.1 and 17,” *NTS* 63/2 (2017), 203-221.

33. 민 11:26-29의 엘닷과 메닷을 추가하면 72장로가 된다. Edwards,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304.

이다. (3) 탈무드에 따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었던 모든 계명은 그 자체로 나뉘었는데, 모두 ‘70’개의 언어로 들을 수 있었다(B. Shabbat 88b). (4) 요세푸스는 갈릴리에 ‘70’ 행정관 의회를 지명하여 세웠고(유대전쟁사 2.20.5), 유대-로마 전쟁 동안 열십당은 ‘70’명의 재판관을 꾸며 놓았다(유대전쟁사 4.5.4). (5) 미쉬나에 따르면 최고 산헤드린은 ‘71’명으로 구성되었다(Sanhedrin 1.5.6; 2.4). 다른 구절에서는 ‘72’인의 장로들로 된 (지역?) 의회를 만들었다(Zebahim 1.3; Yadaim 3.5; 4.2). (6) 아리스테아스 편지(Letter of Aristeas, 46-50)에 따르면, 6장로가 토라의 헬라어 번역을 준비하기 위해 각각 12지파로부터 선택되었다. 이후의 저자들은 ‘70’ 혹은 경우에 따라 좀 더 엄밀하게 ‘72’를 상정한다. (7) 초막절 제의에서 ‘70’ 수송아지들이 이방 나라들의 행동을 위해 받쳐졌다. (8) 여룹바알의 ‘70’ 아들(삿 9:2), 아합의 ‘70’ 아들(왕하 10:1), 벨의 ‘70’제사장이 있었다(벨과 용 10). (9) 1에녹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천사 같은) ‘70’ 목자들 사이에 있는 것 같았는데(1에녹 89:59), 3에녹에서는 높은 나라들 왕자의 숫자가 ‘72’이며 세상에 있는 ‘72’개의 말과 일치한다(17:8; 18:2-3; 30:2). (10) 에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진 ‘70’ (외경) 책들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는다(2에스드라 14:46). (11) 예루살렘 탈군에 따르면, ‘70’ 전사들이 바벨탑을 보려고 하나님을 따라 내려왔다.³⁴ 위의 예에서 보듯이, 70이 조금 더 우세하지만, 구약의 히브리어 본문 혹은 LXX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70과 72가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이 두 숫자는 교호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누가에게 제자들의 수 ‘12’가 중요하듯이(눅 9:1-6; 참고. 막 6:7), 6x12에 해당하는 ‘72’ 역시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에 있어 중요하다. 이것

34. 최선미, “72인 파송,” 71-74에서 요약 인용.

은 누가-행전의 중심 주제에 부합한다.³⁵

1.14. 누가복음 10:15

p ⁷⁵ B D	καταβήση
p ⁴⁵ ⋈ C 다수사본	καταβιβασθήση
개역개정	낮아지리라
바른성경	내려갈 것이다
번역 제안	내려갈 것이다

사본 상 미래 수동태 직설법 2인칭 단수 καταβιβασθήση가 지지를 더 받는다.³⁶ 이 동사는 눅 10:15에서 p⁷⁵ B D가 지지하며, 또한 병행본문인 마 11:23의 비평사본에 등장하는 중간태 직설법 동사 καταβήση보다 더 어렵다.

마 11:23의 다수사본에도 등장하는 καταβιβασθήση는 καταβιβάζω의 미래 수동태 직설법 2인칭 단수형이다. 만약 καταβιβασθήση를 신적수동태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가버나움을 낮아지도록 만드신다. 그러나 이 동사는 누가복음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누가는 καταβαίνω를 13회나 사용한다. 따라서 외증과 내증(內證)은 καταβήση를 지지한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유대-로마전쟁으로 가버나움이 파괴됨으로 성취되었다.³⁷

1.15. 누가복음 10:17

35. Garland, *Luke*, 425; Thompson, *Luke*, 168.

36. Pardee, "Scribal Harmonization in Greek Manuscripts of the Synoptic Gospels from the Second to the Fifth Century," 179; Metzger, 『신약 그리스와 본문 주석』, 123.

37. Garland, *Luke*, 428.

p ^{45, 75} B	δύο
κ 다수사본	생략
개역개정	생략
바른성경	(이)
번역 제안	(이)

눅 10: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본 상 두 이문을 대등한 지지를 받는다. 여기서 δύο(이)는 p⁴⁵의 지지도 받는다. 괄호 안에 (이)로 처리하는 것이 무난해 보인다.

1.16. 누가복음 10:21

p ⁷⁵ κ B	ἐν τῷ πνεύματι τῷ ἁγίῳ
A 다수사본	τῷ πνεύματι ὁ Ἰησοῦς
개역개정	예수께서 성령으로
바른성경	예수께서 성령으로
번역 제안	예수께서 성령으로 ³⁸

눅 10:21의 동사 ‘매우 기뻐하다’(ἀγαλλιάω)는 대체로 전치사 ἐν 혹은 ἐπί를 동반한다(참고. 눅 1:47).³⁹ 그리고 사본 상 첫째 표현이 오래된 알렉산드리아 사본계열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 여기서 누가복음 1-10장에서 ‘성령’을 표기할 때, 형용사 ‘거룩한’(ἅγιον)을 대체로 포함하는가라는 문체 즉 내적 증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룩한’(ἅγιον)을 포함하는 경우는 총 6회(눅 1:15,

38. 주어 ‘예수께서’는 원문에 없기에 작은 글자로 표시한다.

39. Metzger, 『신약 그리스와 본문 주석』, 123.

35, 67; 2:25; 3:22; 4:1)이다. 반면, 형용사 ‘거룩한’이 없는 경우는 2회이다(눅 1:47; 4:18). 따라서 누가의 문체는 $p^{75} \propto B$ 의 표기를 지지한다.

1.17. 누가복음 10:41-42

$p^{45, 75} C$	μεριμνᾷς καὶ θορυβάζῃ περὶ πολλά, ἐνὸς δέ ἐστιν χρεία
A 다수사본	μεριμνᾷς καὶ τυρβάζῃ περὶ πολλά, ἐνὸς δέ ἐστιν χρεία
$p^3 \propto B NIV$	μεριμνᾷς καὶ θορυβάζῃ περὶ πολλά, ὀλίγων δέ ἐστιν χρεία ἢ ἐνὸς
개역개정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바른성경	네가 많은 일들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번역 제안	너는 많은 일들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현재 수동태 직설법 2인칭 단수 $\thetaορυβάζῃ$ (걱정하다)는 현재 수동태 직설법 2인칭 단수 $τυρβάζῃ$ (걱정하다)보다 희소한 동사이다.⁴⁰ 그런데 『개역개정』처럼,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은 $\delta\lambda\acute{\iota}\gamma\omega\nu$ (몇 가지, few things)을 추가하는데, B. F. Westcott, F. J. A. Hort, B. Weiss, M-J. Lagrange, A. Merk 등의 지지를 받았다.⁴¹ 그런데 마르다의 (다양한 메뉴의) 식사 준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delta\lambda\acute{\iota}\gamma\omega\nu$)는 독자가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 더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긴 표현은 더 어려운 원본에 일치하며, 누가가 강조하는 (여성의) ‘행함과 봉사’에 적합하고, AD 2-5세기 교부들의 글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40. Metzger, 『신약 그리스와 본문 주석』, 125.

41. T. Wasserman, “Bringing Sisters Back Together: Another Look at Luke 10:41-42,” *JBL* 137/2 (2018), 440.

볼 수 있다.⁴² 그렇다면 다수사본은 의미를 쉽게 만들기 위해 ‘몇 가지’를 생략했는가? 아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가장 이른 사본들인 p^{45, 75}도 ‘몇 가지’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UBS 5판 편집자들은 이 두 파피루스의 가치를 존중하여, 이후의 알렉산드리아 계열 코덱스들인 \aleph 와 B가 지지하는 표현을 본문에 실지 않았다. 참고로 p³은 6-7세기 사본이다.

2. 누가복음 사본들의 통계 및 분석

p^{45, 75}가 서로 일치하는 경우는 4회이다(9:59, 62a; 10:17, 41-42). 불일치하는 경우는 1회이다(10:15). 그러므로 이 두 파피루스는 동질성은 크다.

p⁴⁵가 \aleph 와 일치하는 경우는 2회이다(9:59; 10:15). 반면 p⁴⁵가 B와 일치하는 경우는 5회이다(8:26, 37, 43; 9:62ab). 따라서 p⁴⁵는 \aleph 보다 B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p⁷⁵가 \aleph 와 일치하는 경우는 1회이다(9:59). p⁷⁵가 B와 일치하는 경우는 6회이다(8:26, 37, 43; 9:62ab; 10:17). 따라서 p⁷⁵는 \aleph 보다 B에 영향을 더 많이 미쳤다. 위의 통계를 종합하면, p^{45, 75}는 \aleph 보다 B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⁴³

p^{45, 75}가 \aleph 및 B와 동시에 일치하는 경우는 1회뿐이다(10:17). 그리고 p⁷⁵가 \aleph 및 B와 동시에 일치하는 경우도 1회뿐이다(10:21). 이렇게 낮은 비율은 p^{45, 75} 사이의 이질성 때문이 아니라, \aleph 와 B 사이의 큰 차이점에서 기인한다. \aleph 와 B가 일치하는 경우는 6회이지만(3:3; 6:1; 9:3, 47; 10:21, 41-42), 이 둘의 불일치는 11회나 된다(7:19; 8:26, 37, 43; 9:2, 59, 62ab; 10:1, 15, 17). \aleph 와 B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일치보다 더 많은 것은 다소 의외이다. p³이 \aleph 및 B

42. Wasserman, “Bringing Sisters Back Together,” 460-61.

43. 참고, M. A. King, “Notes on the Bodmer Manuscript of Luke,” *Bibliotheca Sacra* 122 (1965), 237.

와 일치하는 경우는 1회이다(10:41-42). 그리고 p^4 가 \aleph 및 B와 일치하는 경우는 1회이다(6:1).

$p^{3, 4, 45, 75}$ 가 다수사본에 일치하는 경우는 1회 뿐이다(9:59). 따라서 파피루스들은 다수사본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대문자 양피지 코덱스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aleph 와 다수사본이 일치하는 경우는 5회이다(7:19; 9:59, 62b; 10:1, 17). 반면에 B와 다수사본이 일치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다수사본은 \aleph 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요약하면 가장 이른 사본인 파피루스들은 B에 영향을 주었고, B는 다수사본에 영향을 덜 미쳤다. 따라서 누가복음의 사본 가운데 B의 중요성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눅 1-10장의 17개의 사본 분석을 통하여 사본들의 신학적 경향을 추적하는데 무리가 따른다.⁴⁴

나오면서

누가복음의 본문비평은 사본의 무게를 따지는 외증은 물론, 누가의 문체 및 주요 신학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의 일부이므로, 병행 본문에 나타난 표현과도 비교해야 한다. 누가복음에서 다수사본은 표현을 첨가하여 의미를 명료화하는 경향이 많고, 필사상의 오류의 원인을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44. 누가복음의 서방사본에 나타난 반유대적 성향(눅 5:21-22; 6:9-11; 20:23; 23:41) 및 기타 경향들은 G. E. Rice, "The Anti-Judaic Bias of the Western Text in the Gospel of Luke," *Andrews University Seminary Studies* 18/1 (1980), 52-57과 송영목, "누가복음에서 D(05)의 신학적 경향," 『장신논단』 50/1 (2018), 91-92를 보라. 참고로 G. E. Rice는 "The Alteration of Luke's Tradition by the Textual Variants in Codex Bezae"라는 주제로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Ph. D., 1974)를 받았다.

사본의 신학적 경향을 알기 위해 3세기의 파파루스와 4세기의 양피지 코덱스 그리고 9세기 이후의 소문자 다수사본이 제작될 당시의 교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본학은 교부학 및 교회사와 협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 송영목. “누가복음에서 D(05)의 신학적 경향.” 『장신논단』 50/1 (2018): 65-95.
- 신현우. 『누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16.
- 최선미. “72인 파송: 누가복음서 10:1-12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0 (2018): 67-105.
- Bock, D. L. *Luke 1:1-9:50*. BECNT. Grand Rapids: Baker, 1994.
- Cole, Z. J. “P45 and the Problem of the ‘Seventy(-Two)’: A Case for the Longer Reading in Luke 10.1 and 17.” NTS 63/2 (2017): 203-221.
- Culy, M. M., Parsons, M. C., and Stigall, J. J. *Luke: A Handbook on the Greek Text*.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0.
- Die Bybel*. Kaapstad: Bybelgenootskap van Suid-Afrika, 1999.
- Edwards, J. 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Grand Rapids: Eerdmans, 2015.
- Garland, D. E. *Luke*.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11.
- Heater Jr., H. “A Textual Note on Luke 3:33.” JSNT 28 (1986): 25-29.
- Jones, B. C. “A New Sahidic Fragment of the Gospel of Luke from the Michigan Collection.” *Novum Testamentum* 56 (2014): 198-204.
- King, M. A. “Notes on the Bodmer Manuscript of Luke.” *Bibliotheca Sacra* 122 (1965): 234-40.
- Metzger, B. M. 『신약 그리스와 본문 주석』.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장동수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05.

- Nolland, J. *Luke 1-9:20*. WBC. Dallas: Word, 1989.
- Pardee, C. G. "Peter's Tarnished Image: Scribal Polishing in the Gospel of Luke (Ms 0171)." *Annali di Storia dell'Esegesi* 33/1 (2016): 151-74.
- _____. "Scribal Harmonization in Greek Manuscripts of the Synoptic Gospels from the Second to the Fifth Century." Ph.D. Thesis. Loyola University, 2016.
- Rice, G. E. "The Anti-Judaic Bias of the Western Text in the Gospel of Luke." *Andrews University Seminary Studies* 18/1 (1980): 51-57.
- Skeat, T. C. "The Second-First Sabbath (Luke 6:1): The Final Solution." *Novum Testamentum* 32 (1988): 103-106.
- Thompson, A. J. *Luke*. EGGNT. Nashville: B&H Academic, 2016.
- Van Bruggen, J. *Lucas: Het Evangelie als Voorgeschiedenis*. Kampen: Kok, 1996.
- Van der Watt, J. et als (ed). *Interliniêre Bybel: Grieks-Afrikaans*. Vereeniging: CUM, 2012.
- Wasserman, T. "Bringing Sisters Back Together: Another Look at Luke 10:41-42." *JBL* 137/2 (2018): 439-61.